

필자의 성격 특질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종윤 한국교원대학교 박사과정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방법
- IV. 결과 및 분석
- V. 결론

I. 서론

학생의 쓰기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은 의미 구성 방식과 표현 방식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상황에서 구체화된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 학생의 특성에 대한 요소들은 교수·학습을 이끄는 교사에게 유용한 정보가 된다. 따라서 학생 필자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은 작문 교육 연구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들은 주로 필자의 선행 지식, 상위 인지, 기능이나 전략 등과 같은 인지적 특성과 쓰기 동기, 태도, 불안, 효능감 등의 정의적 특성이 쓰기 능력과 어떠한 관계가 성립되는지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학생 필자의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는 학생 필자의 쓰기 능력이 주요한 관심사이자 연구의 대상이 된다. 또한 쓰기 능력에 관한 연구는 학생의 발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쓰기 능력에 관한 연구는 학업 성취에 대한 확인의 목적으로 있지만 학생 필자의 성장과 변화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예측하는 기능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쓰기 능력에 관한 연구에서는 학생 필자의 인지적, 정의적 특성들이 쓰기 능력을 중심으로 한 각 개인의 행동 변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 교사와 학생의 상호 작용은 자신

이나 다른 사람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된다. 특히 교사가 학생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교수·학습 상황에서 학생이 보일 행동을 예측하고, 학생이 보인 행동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쓰기 학습과 관련된 인지적, 정의적 요소들이 학생 필자 각 개인에게 어떠한 행동 변화를 야기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기존의 연구 요인들 외에도 학생 필자의 '성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성격은 태도, 흥미, 효능감과 함께 정의적 특성에 포함되는데 다른 요소들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학생 필자의 '성격'에 주목한 이유는 성격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 때문이다. 먼저 성격은 개인 간의 차이를 드러낸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고 "넌 참 성격이 깔끔하다.", "적극적인 성격이야.",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한다.

이러한 성격은 각 개인 간의 차이를 분명하게 개념화하는 특성이 있다. 그리고 성격은 정의적 특성의 다른 요소인 태도나 흥미에 비해서 비교적 다양한 상황에서 일관적으로 발산되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일정 기간 지켜 본 특정인이 깔끔한 성격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그 사람이 청소나 정리를 하게 되면 비교적 깔끔하게 일처리를 할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성격의 특성이 학생의 개인 차, 행동의 일관성 측면에서 쓰기 능력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판단하였다. Martinsen & Kaufmann(1999)은 개인의 행동 특성 중 성격과 같은 정의적인 특성이 학생의 인지적인 학습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들은 학생이 학습 과정을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학습 유형이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학습 유형은 개인의 심리적, 인지적 과정이므로 비인지적이면서, 정의적 특성인 성격도 학습 유형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개인 차, 행동의 일관성 측면에서 학생의 성격 특질을 파악해 보고, 그러한 성격 특질이 학생의 쓰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탐색

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특질 이론(trait theory)에 주목하였다. 특질 이론은 개인의 성격 특성을 심리적인 경향성으로 파악하여 각 개인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이러한 특질 이론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성격 5요인(Big Five) 모델이다. Gosling et al(2003)에 의하면, 성격 5요인(Big Five) 모델은 상대적으로 성격발달의 이유, 과정 등에 대해서는 설명력이 떨어지지만 성격의 특성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측정하는데에는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소재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학생 필자의 성격 특질이 학생의 쓰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성격검사 도구로는 이선희와 최영임(1994)이 초등학생의 성격 측정을 위해 개발한 성격 5요인(Big Five) 측정 도구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정한 지역, 특정한 장르(논설문)를 통해서 학생 필자의 성격 특질이 학생의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으므로 일반화를 하는 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또한 유사한 정의적인 특성인 동기와 효능감이 쓰기 동기, 쓰기 효능감과 같이 요인의 범위가 유목적적으로 한정된 것에 반해, 성격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필자의 인지적인 학습 양식 형성에 기여하며, 학생의 개인차와 비교적 일관성을 가진 행동 양식이라는 특성을 가진 성격 특질에 관한 실증적인 정보를 도출 할 수 있고, 쓰기 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질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필자의 성격과 쓰기 능력의 관계

학생의 쓰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인지적인 요인과 정의적인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인지적인 요인에는 쓰기 지식, 주제와 관련된 배경 지식, 장르 지식, 쓰기 과정과 전략 등이 있으며 정의적인 요인에는 쓰기 동기, 쓰기 효능감, 태도, 흥미 등이 있다.

그런데 쓰기 능력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른 인지적, 정의적 요인들에 비해서 성격 요인은 그 동안 작문 연구의 대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왜냐하면 성격은 쓰기 능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으며, 쓰기 능력과 관련된 성격 측정 방안을 수립하는 것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핵심 역량 중심 교육, 통합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학습자의 특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에 대한 실증적인 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성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학습자의 특성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주체지향적인 교육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는 것이고 이는 학습자의 기대, 변화, 학습에 의한 행동 양식 형성을 고려한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교육을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이 때 학생의 개인적 특성, 개인 차, 일관된 행동 양식을 드러내어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성격 요인과 같은 정보는 교수 학습을 설계, 구성하고 학습자의 행위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수정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Jensen과 Ditiberio(1984)는 학습자의 성격은 쓰기의 수행과 관련이 있으며, 교사는 이러한 학습자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하고 지도를 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교수·학습에서 학습자의 개별적 특성과 차이가 존재함을 교사가 인지하고 있는가는 성공적인 교수·학습을 전개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쓰기 학습은 학습자의 선행 경험과 의도가 언어라는 도구를 통하여

다양하게 표현되는 학습이다. 따라서 모든 개별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는 없겠지만, 교사가 학습자의 그러한 개별적 특성이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적절히 반영하여 지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Dack(2001)에 따르면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격 특질은 쓰기 능력 중에서 상대적으로 글의 구조를 조직하는 능력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글의 구조를 조직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 특질이 적은 학생들은 그러한 능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글의 조직에 대한 학습을 할 때에는 영향 관계가 높은 성격 특질의 특성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성실성이 높은 학생이 글의 구조를 조직하는 능력이 높고 성실성이라는 특질을 판단하는 기준이 ‘강한 책임감, 철저함, 계획성’이 포함된 행동이라면 글의 구조를 조직하는 능력이 낮은 학생들에게 성실성을 판단하는 기준에 포함된 행동 양식들을 제공하고 활용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McClenney(2010)은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행동 특성이 높은 학생들이 비판적인 사고를 많이 요구하는 설득적인 글쓰기 능력이 더 높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이는 성격과 같이 개인의 특질을 형성하는 행동 요소들은 학습 행위의 구조화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성격 특질은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개인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서 쓰기 학습과 관련된 학습 양식 형성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 정보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비교적 일관적인 행동 양식 특성이 있으므로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처치가 용이하며 이러한 처치를 통한 교육의 효과를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이것은 성격 특질 정보가 쓰기 교육을 위한 일반화 정보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2. 필자의 성격 특질 측정 방법

필자의 성격 특질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격 특질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한 관점 선정이 필요하다.

성격(personality)의 어원은 가면이나 탈을 뜻하는 라틴어 ‘페르소나(persona)’이다. 사람들은 가면이나 탈의 모습을 보고 등장인물의 특성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웃는 얼굴의 밝은 탈을 보면, 친절한 동네 사람들의 경향성을 떠올리게 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가면이나 탈을 제작하는 사람도 그러한 인물의 특성을 관객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가면이나 탈의 모습을 제작한다. 즉 성격은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개인의 특성을 일컫는다. 이와 같은 성격은 유전적, 환경적인 영향을 동시에 받으며 형성되고 변화한다.

성격에 대한 정의는 여러 학자마다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각, 감정, 행동을 조직화하고 통일성을 부여하여 타인과 다른 고유함을 만드는 총제적인 개념으로 정의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식의 정의로는 성격을 객관적이고 타당성있게 측정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학자마다 성격의 특정 측면을 중시하여 이론을 구성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성격을 개인의 동기를 중심으로 보느냐(성격의 동기 이론), 세상에 대한 이해와 지식 중심으로 보느냐(성격의 인지적 접근), 아니면 성격을 특질로 보느냐(성격의 특질론)에 따라서 성격에 대한 정의가 달라지고 성격의 특정 방법도 달라진다(Carver & Scheier, 2004; 김교현 외 역, 2006).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성격 특질을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전제하였다.

첫째, 측정 대상자의 발달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격 측정은 측정 대상자가 드러내는 특성을 유형화하여 각 개인의 특성을 규정하는 활동이다. 따라서 측정 대상자가 측정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측정 환경이 제약으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

둘째, 개인의 행동 경향성을 타당하게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성격을 측정하는 목적은 성격 특질을 통해 개인차를 확인하고, 일관된 행동 양식으로서 행동 경향성에 대한 세부 정보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의 행동 경향성이 타당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셋째, 개인의 특성이 총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총체적인 존재이다. 학생의 쓰기 능력에도 인지적인 특성, 정의적인 특성, 환경적인 특성 등이 총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성격 측정 방법도 개인의 특성을 총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에 부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성격의 여러 측정 관점 중 성격을 특질로 보는 관점에서 측정 방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왜냐하면 특질로 보는 관점은 개인의 경향성을 발견하는 데 용이하다.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행동 특성에 맞는 형용사를 활용해 범주화하여 행동 양식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기 쉽다. 또, 최근 성격 특질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격 5요인(Big Five) 측정 도구는 다른 측정 도구에 비해서 문항 수가 현저히 적어 본 연구의 측정 대상인 초등학생의 집중력을 고려해 보았을 때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되었다.

성격 5요인(Big Five) 모델은 Costar와 McCrae(1985)에 의해서 처음 제안되었으며 1992년 'NEO-PI-R'이라는 도구로 개발되어 이론의 유용성과 보편성을 밝혀내었다. 그리고 성격 5요인(Big Five)을 통해 인간의 공통적인 성격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는 후속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김지현·김복환·하문선, 2011; 모화숙·박미라·하대현, 2013; 박일경 외, 2010; Costar & McCrae, 1997; Pervin, 2003). 또한 성격 5요인(Big Five) 모델을 통해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및 학업 수행 능력, 사회성 발달 단계 등의 주요 변인들과의 유의한 관계를 분석한 연구들도 늘어나고 있다(이선희·최영임, 2011; 최미숙·박지영, 2013; Lamb, Chuang, Wessels, Broberg, & Hwang, 2002). 따라서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대상을 고려하였을 때, 성격 5요인(Big Five) 모델의 적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성격 5요인(Big Five) 모델은 성격의 특질론에서 나온 이론으로 사람의 성격을 평가하는 주요 차원이 다섯 가지 요인으로 대변된다는 이론이다. Goldberg(1993)는 성격 5요인(Big Five) 모델이 생성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에게 존재하는 5개 요인이 개인 간의 차이와 행동 특성을 설명해 줄 수 있으며 이것이 성격 특성을 분류하기 위한 유용하고 타당한 체계임이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격 5요인(Big Five) 모델은 외향성(extroversion), 우호성(agreeable 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정서적 안정성(emotional instability), 경험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experience)으로 구성된다. 이 다섯 가지의 특성은 개인의 정서, 대인관계, 경험, 학습성취 등 다양한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이병임·류형선, 2014).

성격 5요인(Big Five)의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성격 5요인(Big Five)의 특성(이선희·최영임, 2011)

성격 요인	특성
외향성 (extroversion)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경향성을 말한다.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에 적극적이기 때문에 사람들 간의 관계 형성을 선호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다.
우호성 (agreeable ness)	다른 사람과 편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이다. 우호성이 높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 대체로 신뢰를 중시하고 예의가 바르며 협조적이다.
성실성 (conscientiousness)	사회적인 규범, 규칙들을 지키려고 기꺼이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성실성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유능하다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책임감이 강하고, 철저하며, 계획성이 있다.

정서적 안정성 (emotional instability)	자신이 불안, 슬픔, 두려움, 죄책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쉽게 경험하지 않는 경향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대체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긴장 상태를 잘 극복할 수 있으며 비교적 차분한 정서적 상태를 유지한 채 대인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특성이 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openness to experience)	상상력, 미적 감수성 등과 같은 지적인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것이 높은 사람들은 상상력과 감수성, 지적 호기심이 풍부하며, 새로운 자극에 대해서 개방적이다.

이와 같은 성격 5요인(Big Five) 들은 여러 실증적인 연구들을 통해 개인의 특성인 성격에 대해서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음이 밝혀졌다. 이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특성, 유의미한 차이의 의미를 밝히는 연구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Gosling, Rentfrow & Swann, 2003).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성격의 관점은 무엇이며, 성격 특질을 반영할 수 있는 성격 5요인(Big Five) 모델의 측정 방법의 특성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지금까지 개발된 성격 측정 방법들은 일반적인 개인의 행위, 광범위한 개인의 학습 행위 특성을 밝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개발되었다. 따라서 맥락 지향적으로 쓰기 학습을 위해서, 쓰기 학습 행위의 특성을 밝히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성격 측정 도구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 개발된 성격 측정 방법 중에서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관점과 측정 방법을 토대로 측정 도구를 선정하는 것도 연구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동일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성격 5요인(Big Five)이 학습자의 쓰기 능력에 어떠한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관련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 학년은 6학년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 대상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연구 대상의 참가 현황

학년 \ 성별	남	여	계
6학년	55	55	110

연구 대상자들 중에서 성실하게 응답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이나 두 검사지 중에서 한 가지 검사에만 응한 학생은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였다.

2. 검사 도구

1) 성격 5요인(Big Five) 검사

성격 요인을 측정하기 위해서 Big-Five Scale for the California Child Q-set(John et al., 1994) 척도를 번역하여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타당성 연구를 실시한 이선희와 최영임(2011)의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다. John et al(1994) 연구의 경우 검사 문항이 48문항이었는데 이선희와 최영임(2011)은 요인 분석과 기존 연구 결과와의 유사성 검증 실험을 통해서 타당성이 높은 18문항을 선정·개발하였다. 18문항은 성실성 4문항, 정서적 안정성 4문항, 우호성 4문항, 외향성 4문

항, 개방성 2문항으로 구성되었고¹ Likert 척도로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성격 요인에 대한 하위변인 개념과 신뢰도는 <표 3>과 같다.

표 3. 성격 5요인(Big Five)의 개념 및 신뢰도

변인	개념(문항수)	신뢰도
성실성	사회적인 규범, 규칙들을 지키려고 기꺼이 노력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4문항)	.77
정서적 안정성	자신의 불안정한 정서를 얼마나 쉽게 통제할 수 있는가를 나타낸다. (4문항)	.79
우호성	우호성은 다른 사람과 편안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정도이다. (4문항)	.80
외향성	다른 사람과의 관계 형성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 (4문항)	.51
개방성	상상력, 미적 감수성 등과 같은 지적인 자극, 변화, 다양성을 좋아하는 정도를 말한다. (2문항)	.84
전체	18문항	.67

내적 일관성 계수인 cronbach's α 로 계산해 본 각 요인들의 신뢰도는 성실성 .77, 정서적 안정성 .79, 우호성 .80, 외향성 .51, 개방성 .84로 나타나 문항의 수를 고려하였을 때 외향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에 대한 신뢰도는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²

1 원래 Big-Five Scale for the California Child Q-set에 제시된 개방성 문항은 7문항이다. 그런데 지성(intellect) 또는 지적 호기심을 측정하는 문항들 이 성실성 요인과의 부하량이 높게 나와 그러한 문항들을 제외하고 상상력 또는 창의성을 반영한 2문항만을 선정하였다(이선희·최영임, 2011)고 한다.

성격 5요인(Big Five)검사는 적은 수의 측정도구를 이용해서 성격척도를 타당하고 효율적으로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Gosling et al(2003)은 10문항으로 구성된 성격 5요인 척도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2 이선희와 최영임(2011)의 타당성 연구 결과에서는 각 요인들의 신뢰도가 성실성 .72, 정서적 안정성 .72, 우호성 .71, 외향성 .51, 경험에 의한 개방성 .76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도 외향성을 제외한 다른 요인들의 신뢰도는 양호하였다.

2) 논설문 쓰기 능력 검사

본 연구에서는 학생 필자의 쓰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논설문 쓰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논설문 쓰기의 주제는 2009 개정 국어 교과서 6학년 1학기 9단원 학습 내용인 ‘기념일은 필요한가?’에 대해서 작성 을 하도록 하여 연구에 의한 수업 결론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학생들이 쓴 논설문은 필체에 의한 간접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 드 프로세서 형식으로 변환하였다.

논설문 쓰기 능력을 검사하기 위한 검사 도구는 Spandal & Culham (1996)이 개발한 검사 도구를 우리나라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수정한 임진선(2011)의 검사 도구를 활용하였다.

논설문 쓰기 평가는 내용, 조직, 표현으로 구분되며 각 5점씩 만점은 15점이었다.

논설문 쓰기 능력 측정은 초등학교 교사 3인에 의해서 평가되었으며, 평가자간 신뢰도는 급내 상관 계수(ICC)로 측정하였는데 Cronbach α 값 으로 .849 가 나왔으며, 본 연구를 진행하는 데 타당하게 산출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5년 6월 15일부터 2015년 7월 5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성격 요인 측정 설문지 110부, 학생이 작성한 논설문 110부를 회수하였다. 설문과 논설문 작성은 담임교사에 의해 이루어졌 으며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과 유의사항을 전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8.0 window용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들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한 성격 요인과 쓰기 능력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둘 째, 성격 요인과 쓰기 능력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쓰기 능력에 대한 다섯 가지(Big five) 성격 요인의 설명력을 알아보기 위해 쓰기 능력의 요인

(내용, 조직, 표현, 쓰기 능력 전체)을 종속 변인으로 하고 다섯 가지 성격 요인을 독립 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각 변인이 성격특성을 설명하는 기여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설명량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변인은 회귀방정식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IV. 결과 및 분석

1. 기술통계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의 기술통계치는 <표 4>와 같다.

표 4.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의 기술통계($n=110$)

변인	성별	M	SD	변인	성별	M	SD
성실성	남	3.39	.67	내용	남	3.45	1.12
	여	3.45	.71		여	3.81	.85
	계	3.42	.69		계	3.63	1.01
정서적 안정성	남	3.52	.95	조직	남	3.28	.89
	여	3.15	1.05		여	3.66	.96
	계	3.34	1.01		계	3.47	.94
우호성	남	3.26	.58	표현	남	3.51	1.16
	여	3.54	.66		여	3.90	.92
	계	3.40	.63		계	3.71	1.06
외향성	남	3.13	.58	쓰기 능력	남	10.25	2.66
	여	3.28	.84		여	11.38	2.14
	계	3.20	.72		계	10.82	2.47
개방성	남	3.30	.93				
	여	3.18	.89				
	계	3.24	.91				

성격 5요인(Big Five)은 성실성이 3.42, 정서적 안정성이 3.34, 우호

성이 3.40, 외향성이 3.20, 개방성이 3.24로 성실성이 가장 높았으며 외향성이 가장 낮았다. 쓰기 능력은 내용이 3.63, 조직이 3.47, 표현이 3.71로 표현 점수가 가장 높았으며 조직 점수가 가장 낮았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성실성(3.45)과 우호성(3.54), 외향성(3.28)은 여학생이 높았으며, 정서적 안정성(3.52)과 개방성(3.30)은 남학생이 높게 나왔다.

쓰기 능력 점수는 남자가 10.25, 여자가 11.38로 여자가 높았으며 평균값은 10.82로 나왔다. 필자의 성별에 따른 성격 특성과 쓰기 능력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의 상관관계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표 5.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의 상관

성격 요인	쓰기 능력			
	내용	조직	표현	전체
성실성	0.230	.240**	.060	.132**
정서적 안정성	.128**	.178**	.101*	.165**
우호성	-.019	.010	.006	-.001
외향성	-.045	.054	-.003	.003
개방성	.070	.104*	.054	.093

* $p < .05$, ** $p < .01$,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격 요인 중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은 쓰기 능력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우호성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쓰기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성격 요인과 쓰기 능력의

하위 요인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성실성은 조직 요인($r = .240$, $p < .01$)과 중간 수준 정도의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정서적 안정성은 내용($r = .128$, $p < .01$), 조직($r = .178$, $p < .01$), 표현 ($r = .101$, $p < .05$)과 낮은 수준의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우호성은 내용과, 외향성은 내용, 표현과 부적인 상관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개방성은 조직($r = .104$, $p < .05$)과 낮은 수준의 정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3. 성격 5요인(Big Five)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력

1) 성격 5요인(Big Five)이 쓰기 능력의 하위 요인에 미치는 영향력

성격 5요인(Big Five)을 독립변수로 하고 쓰기 능력의 하위 요인들을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 간의 단계적 분석방법을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내용 요인과 표현 요인을 종속변수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 결과 내용 요인과 표현 요인은 모든 성격 요인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했다. 쓰기 능력 중 조직 요인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성격 5요인(Big Five)과 조직의 종다회귀분석 결과

종속 변인	독립 변인	B	표준 오차	베타	t	유의 확률	F
조직	(상수)	1.430	.321		4.457	.000	24.676***
	성실성	.425	.073	.268	5.832	.000	
	정서적 안정성	.230	.050	.213	4.646	.000	
<i>R</i> 2(adj. <i>R</i> 2) = .102							

*** $p < .001$

성격 5요인(Big Five) 독립변수로 하고 쓰기 능력의 하위 요인인 조

직을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F = 24.676$, $p < .001$)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약 10%로 확인되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는 성실성 ($t = 5.832$, $p = .000$)과 정서적 안정성 ($t = 4.646$, $p = .000$)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우호성, 외향성, 개방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차한계는 최대가 .983, VIF는 1.017으로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2) 성격 5요인(Big Five)이 쓰기 능력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

성격 5요인(Big Five)을 독립변수로 하고 쓰기 능력 전체를 종속변수로 하여 이들 간의 단계적 분석방법을 통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쓰기 능력 전체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 전체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B	표준오차	베타	t	유의확률	F
쓰기 능력 전체	(상수)	7.417	.804		9.226	.000	11.675***
	정서적 안정성	.486	.124	.185	3.920	.000	
	성실성	.604	.183	.156	3.303	.001	
$R^2(\text{adj. } R^2) = .051$							

*** $p < .001$

성격 5요인(Big Five)을 독립변수로 하고 쓰기 능력 전체를 종속변수로 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 ($F = 11.675$, $p < .001$)이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약 5%로 확인되었다. 개별 독립변수의 종속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본 결과는 정서적 안정성 ($t = 3.920$, $p = .000$)과 성실성 ($t =$

3.303, $p = .001$)의 순서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외향성, 우호성, 개방성은 유의하지 않아 제외하였다. 독립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한 공차한계는 최대가 .984, VIF는 1.017으로 독립변수 간의 상관이 문제가 될 정도로 높지는 않음을 알 수 있었다.

V.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성격 특질이 쓰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서울 소재 A초등학교 6학년 5개 학급을 대상으로(총 110명) 성격 요인 측정 도구와 쓰기 능력 과제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 통계,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의 통계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의 성별 차이를 평균 점수로 살펴보면, 성실성(남학생 3.39, 여학생 3.45), 정서적 안정성(남학생 3.52, 여학생 3.15), 우호성(남학생 3.26, 여학생 3.54), 외향성(남학생 3.13, 여학생 3.28), 개방성(남학생 3.30, 여학생 3.18), 쓰기 능력(남학생 10.25, 여학생 11.38)로 각각 나타났다.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정서적 안정성과 개방성이 높았으며 여학생은 성실성, 우호성, 외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쓰기 능력은 남학생 보다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의 하위 요인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먼저 내용과 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이 성립되지 않았다. 조직의 경우에는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F = 24.676$, $p < .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조직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성실성의 상관 정도는 중간 수준이고 정서적 안정성의 상관 정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Ⅱ장 2절에서 언급한 Dack(2001)의 연구 결과와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Dack(2001)의 연구에서는 필자의 성격 특성이 글의 형식적인 특성인 조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필자의 성격 특성 중에서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라는 세부적인 요인이 글의 조직 영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 전체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쓰기 능력 전체의 경우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F=11.675$, $p<.001$)이 유의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은 쓰기 능력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으며 모두 낮은 수준의 상관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의 의의와 개선 방향에 대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생의 성격 5요인(Big Five)을 측정해 봄으로써 필자의 내적 특성과 쓰기 능력의 연관성을 밝힌 점이다. 성격은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독특한 행동방식이다. 따라서 이러한 성격은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지속적이며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치는 내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학생의 초등학생의 성격 요인과 쓰기 능력간의 관계를 밝힌 것으로 인하여 앞으로 쓰기 학습 상황에서 초등학생들이 겪게 되는 문제 상황에서 성격과 같은 개인 특성 측면의 접근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는 연구 외에 현실적인 쓰기 학습 상황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 구현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논설문 쓰기 학습을 할 때 학생 필자의 성격 특질을 구체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즉 쓰기 능력 전체와 쓰기의 조직 영역에서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이 상관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은 사회적인 규범과 규칙을 지키려는 성격 특성과 불안, 두려움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극복하는 성격 특성이 쓰기 능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쓰기 학습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면, 일단 모든 학생들의 성격 특성을 쓰기 학습에 개별적으로 반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논설문 쓰기에 도움이 되는 성실적과 정서적 안정성 특성을 쓰기 학습에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가령, 특정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고 자신의 의견

을 마련할 때, 계획을 세우게 하는 전략, 대안을 마련하는 전략,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전략을 강조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이러한 성격 특성들에 대한 정보는 교사가 학생들에 대한 비계 지원 비중을 조절할 수 있게 해 줄 수 있다.

셋째, 학습과 관련되어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의사소통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개인의 성격 특질은 학습 주체로서의 학습자가 지닌 비교적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특성이다. 이는 학습이라는 행동 양식을 통해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교사가 학습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긍정적이며 발전적인 의사소통을 이끌기 위해서는 성격과 같은 학습자 개인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쓰기 학습에서 학습이라는 매개가 차지하는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쓰기 학습은 학습 주체와 학습 대상이 학습(내용, 방법)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연결된다. 특히 읽기와 더불어 쓰기는 매개로서의 학습 활동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도 학습 주체로서의 특성인 성격이 학습 대상인 쓰기 능력에 미치는 설명력이 비교적 낮게 나왔다.(성격 5요인(Big Five)과 조직은 10%,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 전체는 5%)

이는 학습자 특성과 쓰기 능력의 직접적인 상관이 비교적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과 동시에 학습자 특성과 쓰기 능력 간에는 여러 가지 학습 활동이나 요인들이 매개로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한다. 즉 불관찰변수, 방해 요인, 설명되지 않는 분산 등으로 불리는 오차항(error term)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상관이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를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는 쓰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학습 내적, 외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들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초등학생들의 쓰기 능력에 대해 이해의 폭을 넓히고 쓰기 학습에서 고려해야 할 개인 특성의 기초 자료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다. 연구의 제한점은 서울 지역에 국한하여 한 학년(초등학교

6학년)만을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다양한 글쓰기의 종류를 포괄하지 못하고 논설문 쓰기에만 국한하였다는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넓히고, 글의 종류를 다양화하여 일반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쓰기 학습과 관련해서 지식과 기능 등의 인지적인 요인과 쓰기 동기, 쓰기 효능감 등의 정서적인 요인들이 성격과 같은 필자의 개인적 특성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쓰기 학습 맥락에 맞는 성격 요인 측정 방안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쓰기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여 쓰기 학습을 효과적으로 설명하고 전망 할 수 있는 폭 넓은 연구들이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15.11.02. 투고되었으며, 2015.11.02. 심사가 시작되어 2015.12.01. 심사가 종료되었음.

참고문헌

고유미(2012), 「성격유형 기질별 소집단 활동이 초등학생의 영어 읽기, 쓰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지현·김복환·하문선(2011), 「간편형 한국어 BFI(빅 파이브 inventory) 타당화 연구」, 『人間理解』 32(1), 서강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47–65.

모화숙·박미라·하대현(2013), 「big5 성격요인과 주관적 안녕감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教育心理研究』 27(3), 한국교육심리학회, 761–781.

박영목(2008), 「쓰기 평가 연구의 주요 과제」, 『작문연구』 6, 한국작문학회, 9–37.

박영목(2008), 『작문 교육론』, 역락.

박영민(2010), 「쓰기 지식과 쓰기 동기가 중학생의 설명문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새국어교육』, 84, 한국국어교육학회, 127–152.

박영민·가은아(2009), 「중학생의 쓰기 동기 수준 및 성별에 따른 쓰기 능력의 차이」, 『국어교육학연구』 35, 국어교육학회, 241–269.

박일경 외(2010), 「5요인 성격특성과 학업 소진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24(1), 81–93.

서미옥(2004), 「대학생의 성별과 전공계열에 따른 학습양식 및 다섯 가지(빅 파이브) 성격특성과 학습양식의 관계」, 『한국심리연구』 18, 한국심리학회, 65–82.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2011), 『교육학용어사전』, 하우동설.

이병임·류형선(2014), 「초등학생의 성격요인이 학업소진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25(3), 293–306.

이선희·최영임(2011), 「아동용 간편 5요인 성격검사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0, 한국심리학회, 543–569.

임진선(2011), 「논설문 쓰기 지식과 쓰기 능력의 관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휘숙(2001), 「애착과 다섯가지(빅 파이브) 성격특성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4, 한국심리학회, 105–119.

조연순 외(2008), 『창의성 교육』,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최미숙·박지영(2013), 「유아용 5요인(빅 5) 성격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幼兒教育研究』 33, 한국유아교육학회, 281-299.

최종윤(2014), 「선행 장르 지식이 초등학생의 설명문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청람어문교육』 51, 청람어문교육학회, 199-230.

한국교육심리학회(2000), 『교육심리학 용어사전』, 학지사.

Bushman, D. (2002). Writing and Personal identity, *Composition Studies*, 30(2), 109-118.

Carver, C. S. & Scheier, M. F. (2004). 김교현·심미영·원두리 역(2006), 『성격심리학』, 학지사.

Chamorro-premuzic, T. & Furnham, A. (2003). Personality traits and academic examination performance, *European Journal of Personality*, 17, 237-250.

Cooper, M. M. (2011). Rhetorical agency as emergent and enacted,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62(3), 420-449.

Costa, P. T., & McCrae, R. R. (1985).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Inc. Costa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manual1985.

Costa, P. T. Jr., & McCrae, R. P. (1992). Normal personality assessment in clinical practice: The NEO personality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4(1), 5-13.

Costa, P. T. Jr., & McCrae, R. P. (1997). Stability and change in personality assessment: The revised NEO personality inventory in the year 2000,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8(1), 86-94.

Dack, C. (2001). Personality revealed in writing a stylistic investigation, Unpublished Master of arts dissertation, Eastern Michigan University, ypsilanti, Michigan, USA.

Driscoll, D. L. & Wells, J (2012). Beyond knowledge and skills: Writing transfer and the role of student dispositions, *Composition Forum*, 26. 1-15.

Eulert, D. (1967). The relationship of personality factors to learning in college composition,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18(2), 62–66.

Facione, P. A., Facione, N. C., & Giancarlo, C. A. (1997). The motivation to think in working and learning. In E. Jones (Ed.) *New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96, 67–79. San Francisco: Jossey Bass.

Gosling, S. D., & Rentfrow, P. J., & Swann Jr. W. B. (2003). A very brief measure of the big-five personality domains,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7(6) 504–528.

Jensen, G. H. & DiTiberio, J. K. (1984). Personality and individual writing processes,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35(3), 285–300.

Kufner, A. C., & Back, M. D., & Nestler, S., & Egloff, B. (2010). Tell me a story and I will tell you who you are! lens model analyses of personality and creative writ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4(4), 427–435.

Lamb, N. E., Chuang, S. S., Wessels, H., Broberg, A. G., & Hwang, C. P. (2002). Emergence and construct validation of the big five factors in early childhood: A longitudinal analysis of their ontogeny in Swedwn, *Child Development*, 73, 1517–1524.

Mackiewicz, J. (2005). How to use five letterforms to gauge a typeface's personality: a research–driven method, *J. Technical Writing and Communication*, 35(3), 291–315.

Mcclenny, C. S. (2011). A disposition to write: relationships with writing perform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Florida State University. Tallahassee, Florida, USA.

Moncada, S. M., & Moncada, T. P. (1999). Writing apprehension and personality type: An investigation of the predispositions of accounting majors, *Proceedings of the Annual Meeting–Decision Sciences Institute*, 1, 27–29.

Pervin, L. A. (2003). *The science of personality* (2th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Russell, D. (1997). Rethinking genre in school and society: An activity theory analysis, *Written Communication* 14(4), 504–54.

초록

필자의 성격 특질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최종윤

본 연구는 학습자의 성격 5요인(Big Five)을 측정하여 필자의 성격 특질이 초등학생의 쓰기 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격 요인, 쓰기 능력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기술 통계, 상관 분석,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격 요인 중 성실성, 정서적 안정성, 외향성, 개방성은 쓰기 능력과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으며, 우호성은 부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그 중에서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쓰기 능력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형성하였다. 둘째, 학습자의 성격 5요인(Big Five)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성격 요인의 하위 요인인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은 쓰기 능력의 하위 요인 중 조직에 통계적인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실성의 β 는 .268, 정서적 안정성의 β 는 .213이며 설명력은 약 10%이다. 또한 쓰기 능력 전체에는 성격 요인의 하위 요인 중에서 정서적 안정성과 성실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안정성의 β 는 .185, 성실성의 β 는 .156이며 설명력은 약 5%이다. 성격 5요인(Big Five)과 쓰기 능력을 측정해 본 결과 필자의 성격 특질이 쓰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적으로 크지 않음을 확인하게 해 준다. 성격 5요인(Big Five) 중 성실성과 정서적 안정성 측면만이 낮은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쓰기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학습자의 특성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핵심어 성격 5요인(Big Five), 쓰기 능력, 초등학생 논설문

ABSTRACT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on Writing Ability for Persuasive Writing of Korean Elementary School Students

Choi, Jongyoon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learners' Big Five personality traits on their writing performance. Hence, data were collected on personality traits and writing performance, and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at an elementary school located at Seoul. Research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as a result of analyzing a correlation between learners' Big Five personality traits and writing performance, conscientiousness, emotional stability, extroversion and openness from personality factors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writing performance, and agreeableness had a negative correlation. Particularly,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stability form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writing performance. Secondly, the effects of learners' Big Five personality traits on writing performance are as follows. It showed that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stability, sub-factors of personal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organization, a sub-factor of writing performance. β of conscientiousness is .268, β of emotional stability is .213, and the explanatory power is about 10%. Besides, among sub-factors of personality, emotional stability and conscientiousn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overall writing performance. β of emotional stability is .185, β of conscientiousness is .156, and the explanatory power is

about 5%. Such findings generally confirm that Big Five personality traits have an inconsiderable effect on writing performance. As for Big Five personality traits, only conscientiousness and emotional stability showed a lower influence. More in-depth discussion is required on individual learners' traits influencing on writing performance.

KEYWORDS Big Five Personality Traits, Writing Performance, Elementary Schoolers' Argumentative Writing